

R-26. 치아접촉점에서 치간골정 거리에 따른 치간유두의 존재와 치근간 거리와의 관계

조해성¹, 김동기², 김병욱¹

¹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²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연구목적

치간유두는 구강 내 심미적인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심미적인 치간유두의 존재는 양 인접한 치근을 사이로 치간골정에서부터 치아접촉점 최하방부까지의 공간을 가득 채우며, black triangle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치간유두의 완전한 존재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염증의 정도, 치간골정의 위치, 인접치근간 거리, 인접치주낭 깊이, 치은의 조직학적 상태와 그 두께, 인접수복물의 존재 여부, 수술의 병력 등이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치간유두의 존재에 영향을 주는 여러 인자 중 치간 공간의 해부학적인 요소인 치아접촉점에서 치간골정 거리 및 치근간 거리를 이용하여 치간유두의 존재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단근치 89부위, 다근치가 포함된 부위 70부위로 총 159개의 치간 부위를 임의로 선택하였다. 실험대상환자들은 본 연구의 계속 전 비외과적 치료와 구강위생교육을 시행하여, 치간유두의 염증의 정도를 최소화하였다. 실험전 측정부위를 완전히 건조시켜 치간유두의 완전한 존재여부를 판별한 후 전층판막을 거상하여 교합면측에 가장 가까운 치간골정에서 치아접촉점 최하방부위까지의 거리 및 그 위치에서 치근간 거리를 williams probe와 특수 제작한 삼각자를 이용하여 실제거리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치간골정에서 치아접촉점까지의 거리, 치근간 거리 및 치간유두의 완전한 존재에 대한 측정치의 상관관계를 관찰하였다.

연구결과

1. 치아접촉점에서 치간골정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치간유두의 완전한 존재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2. 치근간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치간유두의 완전한 존재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3. 치근간 거리가 2.5 mm에서 4.5 mm 까지 증가함에 따라 치아접촉점에서 치간골정 거리가 증가하였다.
4. 치아접촉점에서 치간골정 거리가 4 mm 일 때 치근간 거리 대한 치간유두의 완전한 존재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1.5 mm : 100%, 2.0 mm : 90%, 2.5 mm : 100%
5. 치아접촉점에서 치간골정 거리가 5 mm 일 때 치근간 거리 대한 치간유두의 완전한 존재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1.5 mm : 100%, 2.0 mm : 71%, 2.5 mm : 61%, 3.0 mm : 20 %

6. 치아접촉점에서 치간골정 거리가 6 mm 일 때 치근간 거리 대한 치간유두의 완전한 존재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mm : 100%, 1.5 mm : 50%, 2.0 mm : 37%, 2.5 mm : 25%, 3.0 mm : 16%

이상의 연구결과로 치간부 해부학적 계측치에 따른 치간유두의 존재 여부를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이는 심미적인 치간유두 처치를 위한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